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련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하고 물으신 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구세주)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병을 낫게 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지니고 영화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첫 번째 독서로 들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느님을 믿고 모욕과 수모를 참아 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드러날 때까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하느님 나라를 지상의 나라로 알아듣고 하느님 나라가 서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며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내 뒤로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가면 스승은 앞서가고 제자는 뒤따라가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 생각을 내세워 예수님을 붙잡고 가로막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위치로 돌아가 당신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만 내세워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만 내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며 십자가는 그것을 버리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면 참된 행복과 구원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럼 부활의 영광이 뒤따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으며, 사람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인류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 그 길만이 참된 행복을 얻는 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내가 가는 길에 부딪치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넓은 길, 편편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 주소서.”(최민순 신부)

강구 본당 이성길 프란치스코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난의 길을 부인하며 막아설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화복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읽어내며 사는 지혜와 신앙을 청합시다.

입당성가 :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본기도

†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50장 5절-9절

안 내 :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묵 상 : 인간의 힘은 하느님의 도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약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덕분입니다. 그분 안에 사는 우리는 언제나 당당 합니다.

화 답 송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2독서 : 야고보서 2장 14절-18절

안 내 :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묵 상 : 말로만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걷고, 뛰고, 손잡으며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때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박혔노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8장 27절-35절**

강 론 :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1-3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 178번 ‘성체 앞에’

영성체 후 묵상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와 가슴은 ‘이러면 안돼!’라고 말하는데

내 손과 발은 벌써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요.

사도 바오로도 내 의지와는 달리 어느새 육신이 죄 속에 빠져드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 자녀가 되어 사는 기쁨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일이 아닌 내 일, 때로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아무 의식없이 자연스레 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하느님의 일은 인간의 일과 참 많이 다릅니다.

인간의 일은 언제나 좋아 보이는 것, 건강한 것, 채우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높아지는 것인데

하느님의 일은 늘 겸손하게 사는 삶, 손해 보는 삶, 가난한 삶,

낮아지는 삶, 내어놓는 삶, 순명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착한 자녀가 되기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9번 ‘주를 따르리’

※ 공소사목 성금

서춘자 100,000원

박순희 2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03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 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9월 30일(연중 제26주일) 계림동 본당
- 10월 7일(연중 제27주일) 의성 본당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9월 29일, 10월13일, 27일, 11월 3일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순교자 현양대회

- 일시 : 9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 우곡성지
- 미사주례 : 권혁주(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주일학교 수녀모임

- 일시 : 9월17일(월)11:00~9월18일(화) 14:00
- 장소 : 문경, 연풍 성지순례
- 집결장소 : 11시 점촌터미널
(안동지구 9:50분 안동버스터미널)
- 참가비 : 45,000원
- 준비물 : 세면도구,운동화,필기구

■ 순교자 성월 기념

변지안(아녜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산책

- 주제 : “응답하셨습니다?”
(영화 ‘침묵’을 보며)
- 일시 : 9월28일(금) 19:00~21:00
- 장소 : 교구청 강당
- 작가소개 : CJ E&M 작가, 작가 창작집단 <작심> 대표, 영화 <아빠는 딸> 각색, 영화 팟캐스트 <맥거핀> 진행자, <고사리> 제주문화원형 스토리 공모전 대상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일시 : 9월 30일~10월2일, 10월4일~7일,
10월10일~12일, 10월16일~19일,
10월24일~26일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 문의 : 064-796-9181

■ 꾸르실료 월레미사

- 일시 : 9월17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가톨릭 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 수시 1차 모집 : 9월10일~9월28일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교구 레지오 마리에 도입 60주년 감사미사

- 일시 : 10월 3일(수) 13:00~16:30
- 장소 : 안동대학교 솔뫼 문화관
- 대상 : 레지아 산하 모든 단원
- 문의 : 010-8851-4467

■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 일시 : 10월 9일(화)
- 장소 : 문경

“간추린 안동교구 연보”를 연재하면서

안동교회사연구소에서 지난 2014년도에 「안동교회사연구소 자료집 7 - 간추린 【안동교구 年譜】: 1726-현재」를 간행하였습니다. 안동교회사연구소 소장 신대원 요셉 신부는 간행사를 통해 “이 자료집은 우선 안동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조희열 바오로 선생의 역작 『한국천주교연혁』(2012년)과 대구대교구 100년사 『은총과 사랑의 자취』 및 그 부속도서들과 자료집(2012년), 전주교구에서 간행한 『천주교전주교구사』(1998년), 왜관 분도수도원의 『분도통사(芬道通史)』(2009년), 각종 순교자증언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동교구 25주년 기념 자료집』 등을 참고로 하여 편집하였다.”라고 말하며, 이 자료집의 간행 목적 두 가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왔는가를 알아보고, 앞으로 교회공동체의 행보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19년 안동교구 설정 50주년을 앞두고 이른바 『안동교구통사(安東教區通史)』를 간행하는데 있어서 각 본당이나 제 단체의 편집위원들에게 일정정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교구민들이 교회사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자료집을 통해 교구의 역사를 알고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에 이 자료집의 부분 부분을 발췌하여 『공소사목』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사목국-

[1] 여명기에서 조선교구까지 : 1726-1910

◆ 1726년

○ 농은(隴隱) 홍유한(洪儒漢, 1726~1785) 서울 아현에서 태어나다.

◆ 1742년

7월 11일 교황 베네딕도 14세의 「Ex quo singulari」에 의해 모든 선교사가 「중국예식에 관한 서약」을 하여, 공자(孔子) 숭배와 조상 제사(祖上祭祀)를 단죄하고 참여를 금지하다.

○ 홍유한이 16세 되는 이 해에 성호 이익의 문하생(門下生)이 되다.

◆ 1751년

○ 홍유한이 그의 스승 성호 이익과 함께 『천주실의(天主實義)』, 『칠극(七克)』 등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다.

◆ 1757년

○ 홍유한이 서울의 집을 팔고, 충청도 예산의 여촌(여사울)으로 이사하여 농은(隴隱)이라 자호(自號)하다.

◆ 1770년

○ 홍유한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 1775년

○ 홍유한이 예산의 여촌(餘村)에서 영남지방, 지금의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인 순흥의 구들이로 이주하여 「천주실의(天主實義)」와 「칠극(七克)」에 따른 수계생활(守誠生活)을 하며 살다.

◆ 1776년

5월 이기양(李基讓, 1744~1802)이 아들 이충억과 충청도 덕산에서 알게 된 이존창을 권철신의 문하(門下)에 보낸다.

7월경 이기양이 권철신을 찾아가 하룻밤을 지낸 뒤 돌아오다. 홍유한이 권철신에게 흥낙민, 이존창 등을 강학회에 천거하다.

◆ 1779년

12월 권철신(權哲身 42세)이 남인계 소장 학자들(丁若銓 19세 . 金源星 . 權相學 . 李寵憶 . 李櫟 24세)과 함께 겨울에 주어사(走魚寺) 천진암(天真菴)에서 강학(講學)을 열고, 천주교 교리 연구를 시작하다.

○ 정선암(丁選菴) . 권상학 . 이충억이 강론 후 가사체 글인 『십계명가(十誡命歌)』를, 광암(曠菴) 이벽(李檠)이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를 짓다.

◆ 1781년

○ 중국에서 『사고전서(四庫全書)』를 편찬했는데 그 속에 마태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신부의 『천주실의(天主實義)』, 히르비스트(Ferdinandus Verbiest 南懷仁)의 『교요서론(教要序論)』, 디아즈(陽瑪諾, Emmanuel Diaz)의 『경세금서(輕世金書)』, 판토오하(龐迪我, Juan de Pantoja)의 『칠극(七克)』을 수록하는 것을 허락하다.

◆ 1783년

봄 정약전 . 윤지충(25)이 진사시에 합격하다.

6월 24일(갑신) 박명원을 동지사 겸 사은사로, 유의양을 부사로 하고, 이동욱(李東郁)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다.

12월 13일(음력 10월 14일) 수학(數學)에 관심이 많았던 만천(蔓川)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이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행(燕行)을 떠나는 부친 이동욱(李東郁, 평창이씨 1739~?)을 따라 북경에 도착하다.

○ 중국에 진출한 예수회가 해산 당하고, 북경 프랑스 선교단을 라자로회(공식 명칭은 ‘宣敎修道會’)가 책임지게 되어 청나라 북당의 선교 사업을 계승하다.

-다음에 계속-



물에 대하여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이 물은 정말 깨끗할까?’ 생수병 뚜껑을 따면서 드는 의문이다. 믿는 마음으로 사서 먹기는 하지만 개운치 않다. 의심스러우면 끓여서 먹으면 될 테지만 예사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농담 삼아 ‘앞으로는 물을 사먹을 시대가 온다.’더니 어드레 현실이 되어버렸다.

21세기의 인류는 고도의 과학문명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의식주, 특히 ‘식’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엔 비싸고 좋은 음식, 특히 육류라면 최고로 생각했지만. ‘웰빙(wellbeing)’이란 말이 바람처럼 일어나면서 채식과 과일의 매출이 육류보다 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의 기초가 ‘물’에 있다는 상식이 일반화 되었다. 장수의 비법을 따져보면 규칙적 운동과 식습관 조절, 그리고 물이다. 하루 3L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분이 같은 물을 사먹지만 앞으로는 물의 종류도 다양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타민 수, 칼슘 수 등의 이름표를 달고 가격이 몇 십 배 오를 수 있는 여자가 충분하다. 지금도 어떤 생수는 석유보다 가격이 비싸다.

좋은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정수기 제품만 봐도 알 수 있다. 천연암반 수, 미네랄 수, 알칼리 이온 수 등 가지각색의 수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정수기 상품은 이미 홍수상태나 다름없다. 도시에 사는 가정이나 회사 어디든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없다. 냉수와 온수가 번갈아 나오니 사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얼음까지 만들어지는 정수기도 출하된다. 그만큼 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한 물에 대한 선호에는 부작용도 있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정수기라 할지라도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나 약수도 사용 중단된 곳이 많다. 오염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1급수의 물을 가진 곳은 전국에 몇 곳이 안 될 정도로 드물다.

6-70년대엔 동네에 공동우물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 집안에 우물을 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공동우물에서 물동이를 물러 날라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침병거리며 두레박이 퍼 올리던 물에는 싱싱함이 넘쳐났다. 물을 길는 동안 서로 일상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문화를 형성했다. 우물 속으로 흘러가던 구름이며, 빠꾸기 울음소리며 그런 것들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다.

시골에 계시는 신부님을 찾은 적이 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기로 유명하다. 물 사러 가기 귀찮아서 그런가 싶어 생수를 한 묶음 사갔다. 기어이 도로 가지고 가라고 했다. 한평생 수돗물 그냥 마셔도 아무 탈 없었다며 다시 수돗물 한 컵을 마셨다. 그럼 황토항아리를 하나 사서 수돗물 불순물이 밑으로 가라앉거든 드시라고 했더니 걱정 말라며 또 한 컵 들이키며 정수기물과 수돗물의 장단점을 따지면 수돗물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상실되어버렸다.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건 그만큼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폭염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논리 때문이다. 생수를 마시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 옛날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던 우물물이 간절하게 그립다.